

5

AGRICULTURAL OUTLOOK 2024 KOREA

제5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대응 과제[†]

황윤재*·김경진**

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 1.1. 왜 반려동물 연관산업인가?
- 1.2.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요인
 - 1.3. 반려동물 양육 현황
- 1.4. 반려동물 관련 국민 인식 변화

2.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관련 동향

- 2.1. 국내외 산업 현황과 전망
- 2.2.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연구 동향

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 3.1. 정책 방향
- 3.2. 선결 과제

[†] 황윤재·박기환·박성진·박준홍, 2023, 『농식품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펫푸드 산업 육성 과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재구성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jhwa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kj0470@krei.re.kr

요 약

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 경제 수준 향상, 고령화·저출산, 인구구조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양육 비용을 아끼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한 다양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산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① 인구·가구 구조 변화, ② 경제 수준 향상, ③ 전통적 가족관 변화, ④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하고 관련 인식이 변화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기업 성장·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정부는 적극적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관련 동향

-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연관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 시장 규모가 2022년에 3,781억 달러이며, 2022년 이후 연평균 7.5%씩 성장하여 2032년에는 7,80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시장 규모는 2021년에 시장 규모가 292백억 원에 달하며, 2028년에는 412백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반려동물 정책은 2010년대 중반까지 주로 ‘동물 보호·복지’관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신산업·신시장 육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였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고 하부 조직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동물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두었다.

- 그러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이 비교적 최근에 본격화됨에 따라, 아직까지 관련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근거 법령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한 R&D 투자 지원규모는 2017년부터 2023년 4월 13일 현재까지 약 1,468억 원(총 1,016건)에 달한다.

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산업 성장 초기 단계로,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산업의 특성과 정책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 첫째, 반려동물 관련 개념을 재정립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세부 산업 영역과 범위를 구체화하며, 세분화된 산업 분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조사·통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의 세부산업별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시장 조사도 정례화될 필요가 있다.
- 넷째,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에 특화된 수출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 대상국을 선별하고, 각국의 시장·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반려동물 관련 R&D 성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부산업별로 기업들의 R&D 수요를 반영한 세밀한 대응(지원)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와 이해 당사자인 산업계, 기타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실태조사, 정보 제공·교육 등으로 민간조직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0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1.1. 왜 반려동물 연관산업인가?

- 경제 수준 향상, 고령화·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양육에 드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한 다양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 반려동물을 가족화·인간화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이 반려동물 관련한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반려동물 관련한 다양한 요구·수요를 반영하여 산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과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의료 등 반려동물의 양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요구·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펫테크, 펫금융 등의 새로운 산업 분야가 등장하고, 펫푸드 등의 기존 산업 영역도 한층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의 관련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 예컨대, 과거 펫푸드 산업은 주로 주식 개념의 사료 산업을 의미했다. 그러나 ‘펫 휴머니제이션’ 경향이 확산되면서 펫푸드 제품이 인간이 먹는 식품과 같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펫푸드 산업이 주식 개념의 사료 산업은 물론 간식, 특수목적식 등으로 산업 영역이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내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양육 인구 증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2022)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펫케어 시장이 전년 대비 6.9% 성장하였다.¹⁾
 -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천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4,978천만 명으로 5천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육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정책 전담 조직(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정부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혁신 및 투자 활성화, 수출 확대, 기업 생산성 제고,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한국무역협회, 2022, “성장하는 펫케어 산업 최신트렌드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Trade Focus》 2022년 1호.

1.2.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요인

- 이 절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및 연관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① 인구·가구 구조 변화, ② 경제 수준 향상, ③ 전통적 가족관 변화, ④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²⁾

1.2.1. 인구·가구 구조 변화

- 저출산·고령화,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22년에 17.5%로 10.3%p가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인 가구 비율은 2000년에 전체 가구의 34.6%에서 2022년에는 61.9%로 27.3%p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현정·이현순(2022)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추세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1인 가구의 주요 비율을 차지하는 20~30대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반려동물 양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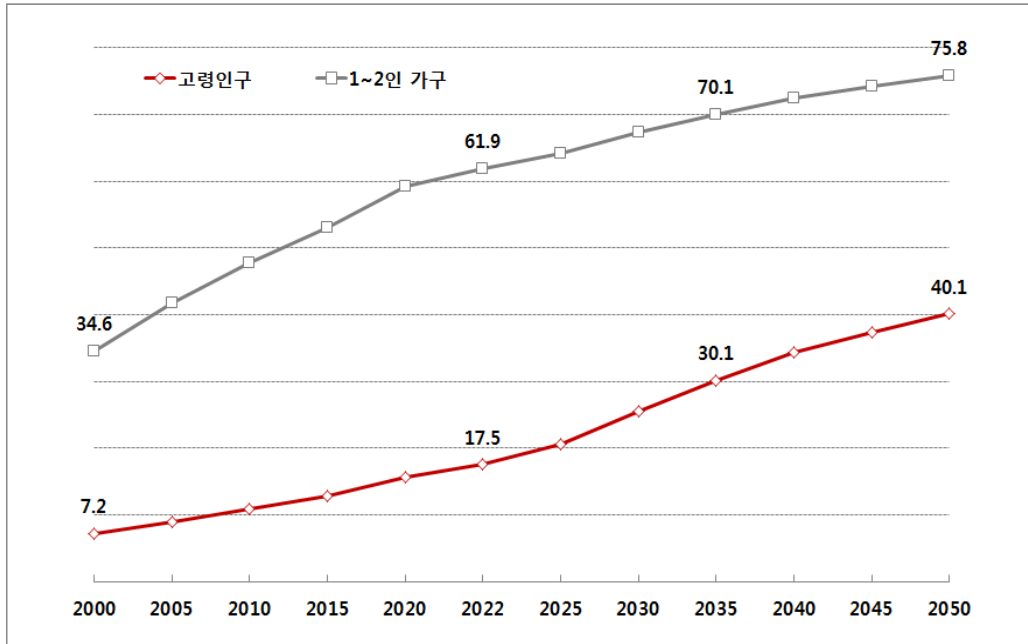
2) 기존 문헌에서는 첫째, 고령화·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 변화, 둘째, 국민 소득 증가로 인한 경제 수준 향상, 셋째,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인한 전통적 가족관 변화,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 등이 반려동물 및 연관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다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이 반드시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일본은 반려견 양육 규모가 감소하면서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가 2013년 이후 연평균 0.8%씩 감소함. 이러한 양육 감소의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좁은 주택 등 반려동물 양육에 불리한 여건이 주로 지적되며, 정부의 반려동물 육종 관리 강화로 인한 반려견 육종가 수 감소와 분양가격 상승,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으로 인한 반려동물 수명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황윤재 외, 2023).

4) 이현정·이현순, 2022, “반려동물 건강 기능성 식품과 보충제 관련 시장 현황”, 식품산업과 영양 27(1): 12-19,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그림 5-1. 국내 고령 인구 및 1~2인 가구 비율 변화 추세(2000~2050년)

단위: %



주 1)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율임.

2) 2000~2020년은 확정치, 2021년 이후는 추계자료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1.2.2. 경제 수준 향상

-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연관산업의 발전은 국가 및 가계의 경제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약 1만 달러에 도달한 1990년대에 ‘애완(愛玩)’ 개념으로서 반려동물의 양육이 본격화되었으며,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반려동물 양육 문화와 관련 인식, 정부 반려동물 정책이 점진적으로 변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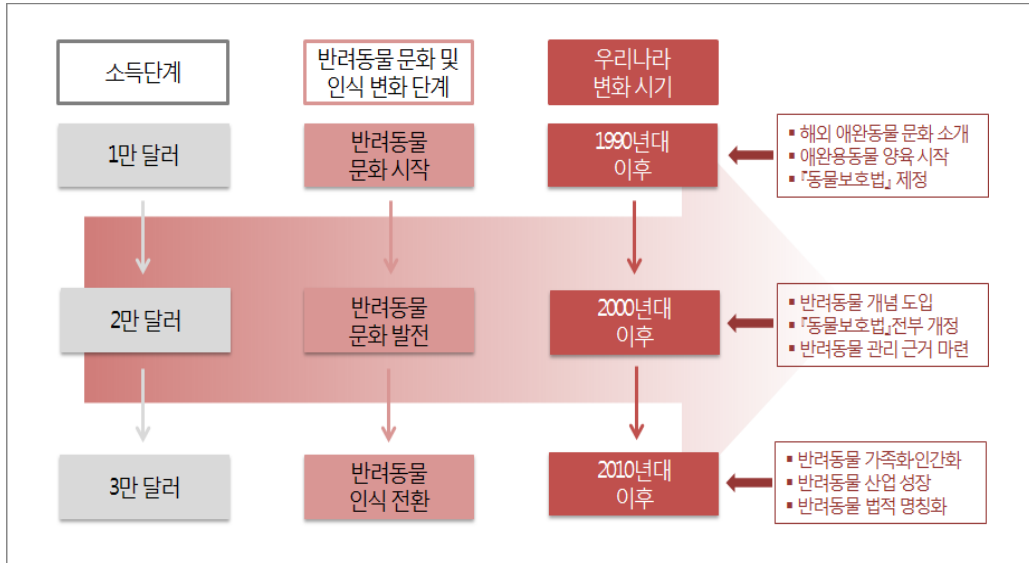
- 한희정(2022)에 따르면 “가구소득과 반려동물 양육률이 비례하는 양상”이 있다.⁵⁾

-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애완’에서 ‘동반자’로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의 개념이 도입되고,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5) 한희정, 2022, “반려동물 돌봄과 인터넷 소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388-400, 한국콘텐츠학회

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반려동물을 가족화·인간화하는 최근의 인식 변화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그림 5-2. 국민소득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 및 인식 변화



자료: 황윤재 외(2023)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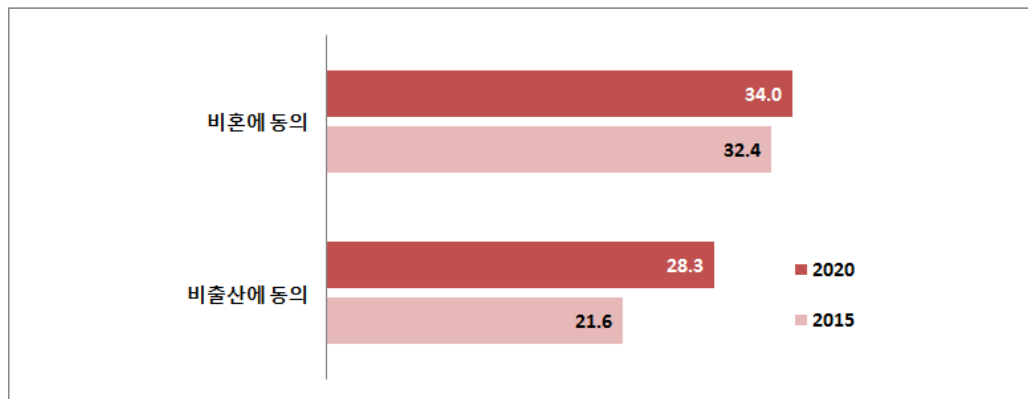
1.2.3. 전통적 가족관 변화

-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가족·집단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족관이 약화되고, 결혼 및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조혼인율이 2000년에 7.0건에서 2022년에 절반 수준인 3.7건으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0.81명에 불과하다.
- 전통적 가족관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가족 또는 인간화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 외(2021)에 의하면 2020년에 비혼과 비출산에 동의하는 20대 젊은 계층의 비율이 52.9%, 52.4%에 달한다.⁶⁾ 이를 고려할 경우 전통적 가족관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반려동물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 김영란 외,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그림 5-3. 연도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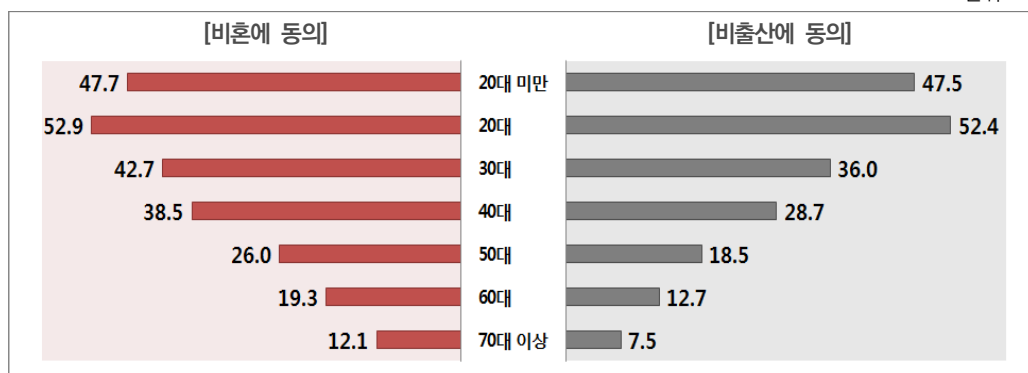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황윤재 외(2023) 인용.

그림 5-4. 연령대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2020년 기준)

단위: %



자료: 황윤재 외(2023) 인용.

1.2.4. 코로나19 이후 생활양식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전 세계 주요 60여 개국에서 반려동물 개체 수가 2016년 16.5억 마리에서 2020년 18.7억 마리로 약 13.5%가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팬데믹 퍼피 (Pandemic Puppy)’라는 신조어도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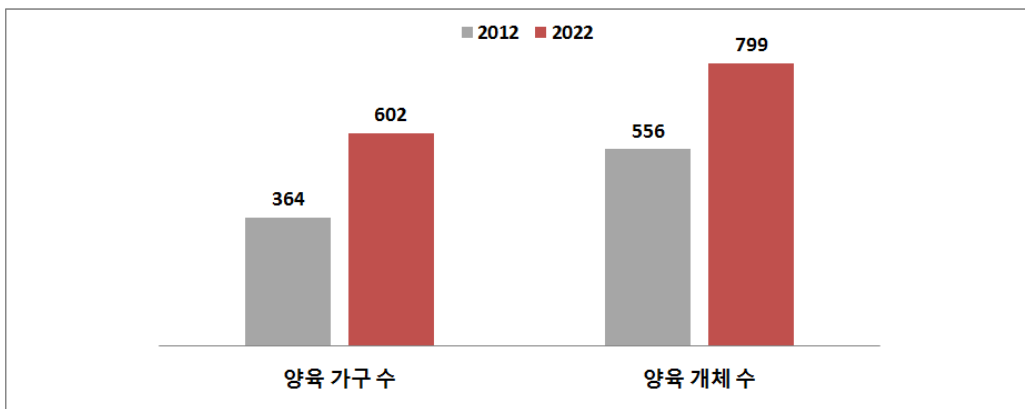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펫케어 시장은 2014~2019년에는 연평균 5.5% 성장하였으나, 2020~2021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8.1%에 달하였다. 우리나라도 펫케어 산업이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에는 3.9% 성장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19~2020년에는 반려동물 양육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5%로 크게 성장하였다.

1.3. 반려동물 양육 현황

- 국내 반려동물 양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반려견 및 반려묘)는 364만 가구였으나 2022년에 602만 가구로 10년 만에 238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개체 수도 2012년에 556만 마리에서 2022년에는 799만 마리로 243만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2~2022년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연평균 5.2%, 반려동물 양육 개체 수는 연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반려동물 양육률은 2012년 17.9%에서 2022년에는 25.4%로 7.5%p가 증가하였다.

그림 5-5. 국내 반려동물 양육 규모 변화

단위: 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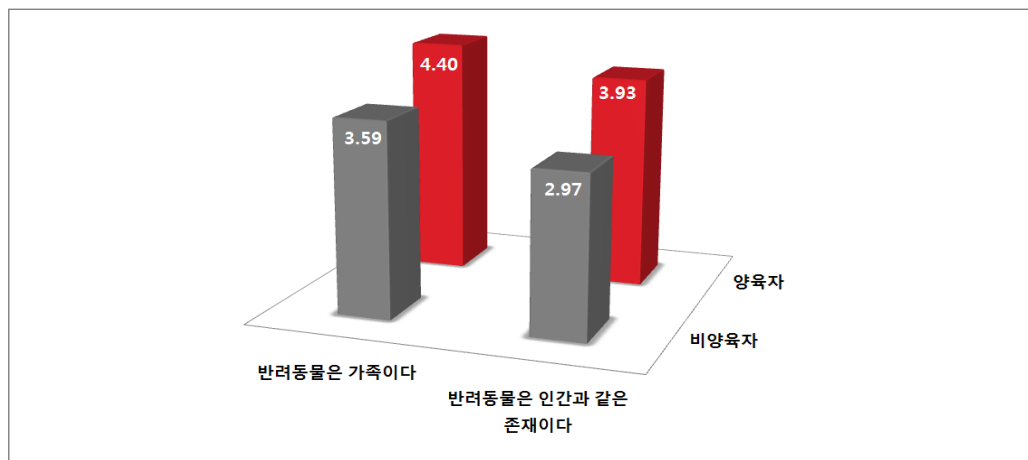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참조.

1.4. 반려동물 관련 국민 인식 변화

-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는 반려동물을 가족화·인간화하는 경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국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양육자(5점 척도 기준 4.40점)와 비양육자(3.59점)가 모두 높은 편이었다.
- 다만 반려동물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은 양육자가 3.93점인데 비해 비양육자는 2.97점의 보통 미만으로 분석되어 큰 차이가 있다.

그림 5-6. 반려동물에 관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인식(5점 척도)

단위: 점



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로, 전혀 그렇지 않음=1, 그렇지 않은 편=2, 보통=3, 그러한 편=4, 매우 그러함=5임.
자료: 황윤재 외(2023) 인용.

-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비양육자의 20.4%가 향후 반려동물을 기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1인 가구(29.2%)에서 양육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인구·가구 구조가 1~2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을 감안해 볼 때 반려동물 양육 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20대의 36.0%가 향후 반려동물을 기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15% 내외이다.

표 5-1. 반려동물 양육 의향

단위: %

구분		없음	보통	있음
전체		60.0	19.6	20.4
연령	20대	40.0	24.0	36.0
	30대	56.0	22.0	22.0
	40대	64.0	22.0	14.0
	50대	64.0	20.0	16.0
	60대 이상	76.0	10.0	14.0
가구원 수	1인 가구	47.9	22.9	29.2
	2인 이상 가구	62.9	18.8	18.3

주: ‘있음’은 ‘의향이 있는 편’과 ‘매우 의향이 있음’, ‘없음’은 ‘의향이 없음’과 ‘의향이 없는 편’을 합한 결과임.
 자료: 황윤재 외(2023)의 반려동물 비양육자 설문조사 결과 인용.

- 반려동물 비양육자들은 반려동물 양육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서적 안정 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36.8%)라고 응답하여, 반려동물을 정서적 교감의 대상이라고 보는 인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동물을 좋아해서’(36.1%) 양육을 희망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향후 반려동물 양육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비용 문제(20.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 향후 반려동물 양육 또는 비양육 의향이 있는 이유

단위: %

양육을 희망하는 이유		반려동물 양육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항목	비율	항목	비율
정서적 안정 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36.8	돈이 많이 들어서	20.1
동물을 좋아해서	36.1	본인이나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18.3
자녀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8.3	키우는데 힘이 들어서	15.8
가족이 원해서	7.6	집에 혼자 두고 다닐 수 없어서	12.3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4.2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서	10.3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2.1	다른 가족이 싫어해서	9.8
집을 지키게 하기 위해	2.1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마음이 아파서	9.1
기타	2.8	기타	4.3

자료: 황윤재 외(2023)의 반려동물 비양육자 설문조사 결과 인용.

02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관련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국내외 산업 현황과 전망

2.1.1. 글로벌 현황과 전망

-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신흥국 소득수준 향상, 프리미엄 소비 경향 확대 등으로 세계 반려동물 연관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반려동물 연관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시장 규모는 2022년에 3,781억 달러이며, 2022년 이후 연평균 7.5%씩 성장하여 2032년에는 7,80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시장은 반려동물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미, 유럽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중남미 지역 신흥국의 성장세가 빠른 편이다. 이 지역 주요국들 중에서 중국의 반려동물 연관시장은 2022~2032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1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브라질도 8.6%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초기 반려동물 연관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던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시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이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으나, 펫푸드의 중요성이 여전히 크다. 둘째, 세계 시장이 반려견 중심 시장이지만, 반려묘 양육의 증가로 반려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펫 휴머니제이션 경향이 확대되면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넷째, 간편화 소비 경향과 코로나19 이후의 생활양식 변화로 온라인 유통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표 5-3. 해외 주요국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현황과 전망(2022~2032년)

단위: 억 달러, %

권역	주요 국가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
		2022년	2032년	
북미	미국	1,313	2,133	4.8
	총계	1,385	2,235	4.8
유럽	독일	47	70	4.2
	영국	52	90	5.7
	프랑스	47	71	4.4
	총계	372	625	5.5
아시아·태평양	한국	47	124	10.5
	중국	417	1,519	13.8
	총계	840	2,248	10.4
남미	브라질	126	282	8.6
	멕시코	58	108	6.6
	총계	225	454	7.4
중동·아프리카	총계	12	15	2.5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태조사」.

2.1.2. 국내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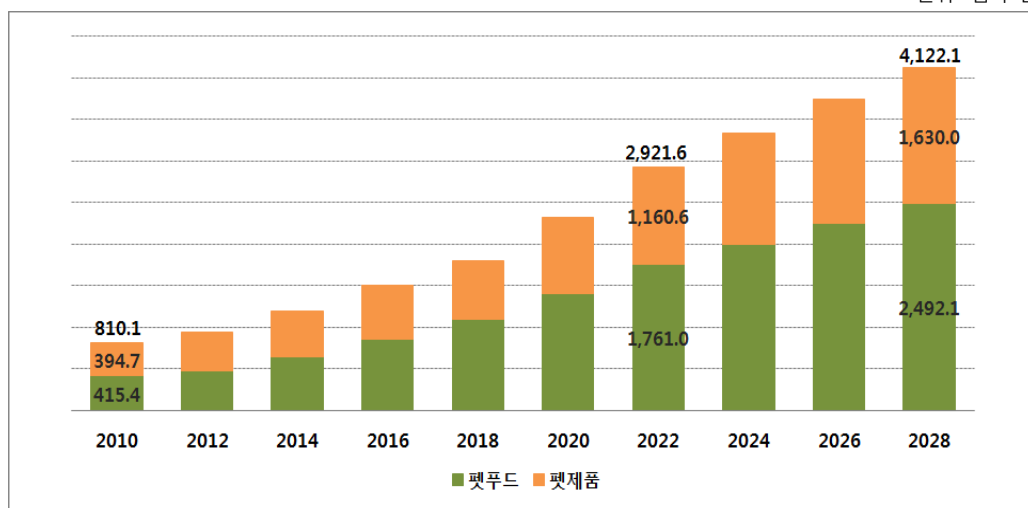
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 국내 반려동물 연관시장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반려동물을 가족화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시장 규모는 2010년 81백억 원이었으나 연평균 11.3%씩 성장하여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292백억 원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반려동물 연관시장은 연평균 5.9%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28년에 시장 규모가 412백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시장에서 펫푸드 시장의 성장세가 펫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펫용품 시장이 2010~2022년 연평균 9.4% 성장한데 비해, 펫푸드 시장은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에 달하였다.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2022~2028년에 펫푸드와 펫용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6.0%, 5.8%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전체 시장에서 펫푸드 시장의 점유 비중이 51.3%, 펫용품 시장이 48.7%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펫푸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점유 비중이 60.3%로 확대되었다. 2022년에 펫용품 시장의 점유 비중은 39.7%로 펫푸드 시장에 비해 20.6%p가 작다. 그러나 2028년에는 펫푸드 시장의 점유 비중이 60.5%, 펫용품은 39.5%로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7. 국내 반려동물 연관시장 규모 변화와 전망(2010~2028년)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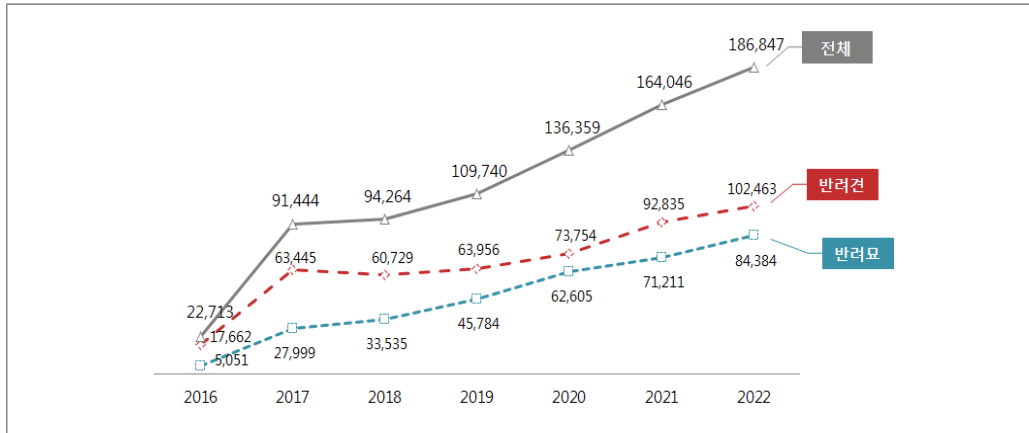
자료: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원자료.

나. 펫푸드 산업

- 펫푸드는 반려동물 생명 유지와 영양 보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반려동물의 주식 개념인 배합사료의 경우 국내 반려견·반려묘 배합사료 총생산량은 2016년 2만 톤에서 2022년에 19만 톤으로 급증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2.1%에 달하였다. 최근 반려묘 양육이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묘 배합사료 생산량 증가율이 2016~2022년에 연평균 59.9%에 달해 전체 생산량 증가를 유인하고 있다.
 - 2016년에 전체 반려견·반려묘 배합사료 생산량 중에서 반려묘 배합사료 생산량 비율이 22.2%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45.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5-8. 국내 반려견·반려묘 배합사료 생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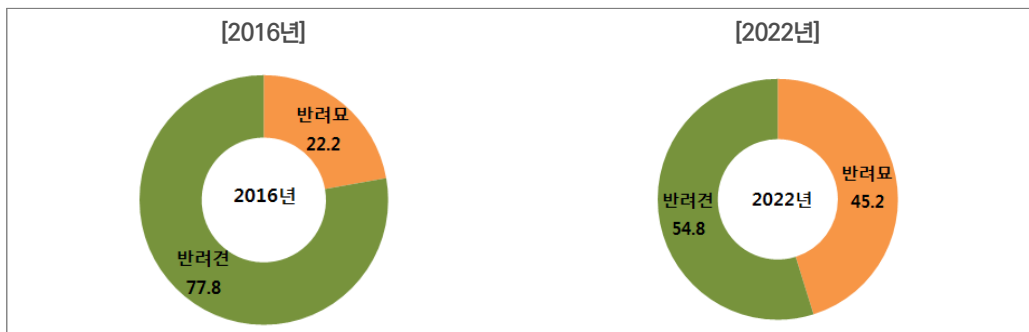
단위: 톤



주: 반려견과 반려묘 배합사료 생산실적만 집계한 자료임.
 자료: 황윤재 외(2023) 인용.

그림 5-9. 국내 반려견·반려묘 배합사료 생산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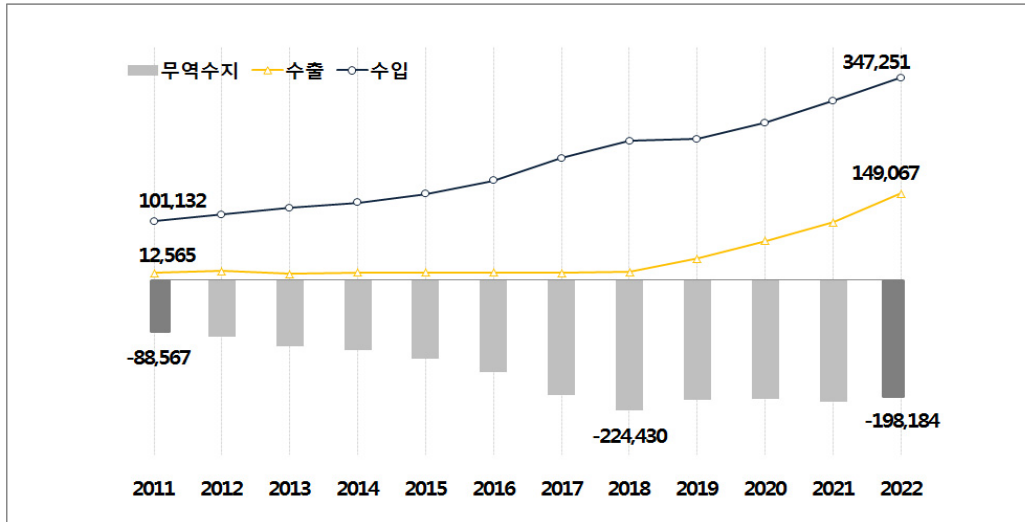


주: 반려견과 반려묘 배합사료 생산실적만 집계한 자료임.
 자료: 황윤재 외(2023) 인용.

- 국내외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펫푸드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펫푸드 수출 증가세가 큰 편이다. 펫푸드 수출 규모는 2011년 약 126억 달러에 불과하였 으며, 2018년까지는 100~1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수출 규 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2년에는 1억 4,907만 달러에 달한다. 2011~2022년에 연평 균 수출 규모 증가율은 25.2%이다.
- 펫푸드 수입 규모가 수출에 비해 큰 편이지만, 2011~2022년에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수출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10. 국내 펫푸드 수출입 변화 추세

단위: 천 달러



주: 소매용으로 한정된 개나 고양이용 사료(HS230910)의 수출입 현황임.
 자료: 황윤재 외(2023) 인용.

2.2.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연구 동향

2.2.1. 관련 정책 동향

- 국내 반려동물 정책은 2010년대 중반까지 주로 ‘동물 보호·복지’관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신산업·신시장 육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의지를 담은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 2010년대 중반 이후 투자활성화 대책(’16. 7., 기획재정부),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19. 12.,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K-Food+수출 확대 전략에도 펫푸드 및 펫테크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정책 의지를 구체화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2023년 8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이

하 ‘정부 육성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반려동물영양 관리강화 방안’, 10월에는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등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 ‘정부 육성대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를 위해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인 육성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⁷⁾

표 5-4.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계획에서 펫푸드 관련 주요 내용

대책명	주관부처	발표시기	펫푸드 관련 주요 내용
투자활성화 대책	기획재정부	2016. 7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2019. 12	5대 유망식품이 선도하는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펫푸드)
K-Food+수출 확대 전략	농림축산식품부	2023. 2	펫푸드·펫테크 등 유망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23. 4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농림축산식품부	2023. 8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
반려동물영양 관리강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23. 8	동물복지 기반 반려동물영양 제도 정착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23. 10	보험 인프라 구축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자료: 황운재 외(2023) 인용.

2.2.2. 정책 추진 체계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조직 및 인력, 예산, 관련 법령 등 정책 추진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육성을 위한 정책 전담 조직을 마련하였다.

-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의 하부 조직 중에서 ‘동물복지정책과’는 동물보호·복지정책,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동물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정부 육성대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진료,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연관산업을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산업별 육성 대책을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2023: 1).

-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정부 및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 반려동물 관련한 연구개발, 검사, 홍보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분담한다.
- 그러나 전담조직 마련과 본격적인 정책 수립·추진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짐에 따라, 아직까지 관련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 2023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총 예산(17.4조 원) 중 에서 반려동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939억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총예산의 0.6%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표 5-5.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동물 관련 세부 예산

구분		2022년 (백만 원)	2023년 (백만 원)	세부 관련 사업 내역
농업 신산업 육성	곤충 미생물 산업 육성지원	10,887	13,822	• 경북 포항 인수공통감염병 및 반려동물의약품 거점 조성 - ('22) 0 → ('23) 300백만 원
	반려동물 전주기산업화 기술개발(R&D)	6,722	8,960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 ('22) 5,880백만 원 → ('23) 7,838백만 원 • 반려동물 첨가제 개발 - ('22) 842백만 원 → ('23) 1,122백만 원
축산업 진흥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15,713	19,769	•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 ('22) 4,693백만 원 → ('23) 7,041백만 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1,020	12,328	• 교육·홍보, 동물보호·복지실태조사정례화, 유실·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 유기동물입양센터설치지원
	반려동물 산업육성	-	400	• 반려동물행동지도자 양성 - ('22) 0 → ('23) 400백만 원
농림축산 검역검사	농림축산 검역검사 기술개발	38,415	38,632	• 반려동물 질병 유형 모니터링, 진단·예방·치료 기반 기술개발 강화 등 반려동물 국가 정책 및 산업분야 지원 - ('22) 1,798백만 원 → ('23) 2,096백만 원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기술개발(반려동물 포함) - ('22) 698백만 원 → ('23) 1,070백만 원

자료: 황운재 외(2023) 인용.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도 미흡하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관련한 주요 법률에는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의 제정 목적과 세부 조항들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의 근거 법령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 동물보호의 문제점이 해외에서 지적되면서, 정부는 1991년에 선언적 차원의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2.3. 연구개발

- 반려동물 관련 연구개발(R&D)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들의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정부 R&D 투자 규모가 2017년 94억 원(97건)에서 2022년 443억 원(2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3년 4월 13일 현재까지 총 1,016건에 대해 약 1,468억 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5-6. 최근 7년 간 주요 부처별·분야별 반려동물 관련 R&D 투자 현황(정부출연금)

단위: 백만 원, %

구분		질병	스마트관리 시스템	펫푸드	육종·번식 (유전체 등)	사양·복지	합계
농림축산 식품부	금액	16,716	823	9,368	1,120	400	28,427
	비율	58.8	2.9	33.0	3.9	1.4	100.0
농촌진흥청	금액	6,170	8,075	6,295	3,372	582	24,494
	비율	25.2	33.0	25.7	13.8	2.4	100.0
중소벤처 기업부	금액	9,942	25,689	6,508	126	-	42,265
	비율	23.5	60.8	15.4	0.3	-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금액	28,645	2,981	2,120	1,649	-	35,395
	비율	80.9	8.4	6.0	4.7	-	100.0
기타	금액	2,551	11,322	2,320	-	-	16,193
	비율	15.8	69.9	14.3	-	-	100.0
합계	금액	32,912	34,622.9	22,229.7	4,635.7	985.8	146,774
	비율	43.6	33.3	18.1	4.3	0.7	100.0

주 1) '기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의 R&D 투자 현황이 포함됨.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를 통해 2023년 4월 13일까지 집계한 결과임.

자료: 황윤재 외(2023) 인용.

- 그러나 반려동물 관련 정부 R&D 투자는 질병, 스마트관리시스템 등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질병, 펫푸드 순으로 R&D 투자 규모가 큰 편이다.
- 질병 관련 R&D 투자 규모가 정부 전체 R&D 투자 중 43.6%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스마트관리시스템(33.3%), 펫푸드(18.1%) 등의 순이다.

표 5-7.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내역	주요 내용	부처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사료(첨가제), 간식, 보충제 등 반려동물 맞춤형 제형화·고품질화 기술개발 • 사료 주원료, 기능성원료 수입 의존도 완화 등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기초 영양생리 대사 특성 규명 • 반려동물 건강개선 기능성 사료 소재화 및 사료 가공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건강 및 복지증진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신체나이 및 건강지표 계량화 연구 • 유전정보·행동특성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술 개발 • 세포기반 반려동물 건강개선 및 질병진단 기술 개발 • 우수 토종견의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체계 구축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질병 유형별 맞춤형 치료제 개발 • 동물의료용 기구·기계, 동물의료용품 및 동물전용 의료기기, 질병(신·변종) 신속진단키트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황윤재 외(2023) 인용.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3.1. 정책 방향

-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반려동물 연관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유럽 지역 시장 규모가 여전히 크며,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다.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까지는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8월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전략산업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영역에 걸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육성대책은 2025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가치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15개까지 육성하며, 펫푸드 수출액을 500백만 불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산업 성장 초기 단계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현황과 실태, 이해관계자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부 정책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정책 기반을 우선 정비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의 특성과 정책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3.2. 선결 과제

3.2.1.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념 정립 및 분류 세분화

-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제도를 적정하게 수립·집행하기 위해 반려동물 및 연관산업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대부분이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으며, 정부 산업 육성 정책도 개와 고양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동물보호법)으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는 물론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을 포함한다.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개와 고양이를 별도로 분리한 반려동물 개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은 법률적으로 애완동물⁸⁾에 개와 고양이만을 포함하며, 미국은 사료관리협회(AAFCO) 지침과 이를 반영한 주별 규정에서 반려동물을 ① ‘pet’(개·고양이)과 ② ‘specialty pet’(개와 고양이 이외의 가정에서 사육하는 길들여진 동물)으로 구분한다.
-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정책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육성대책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의미하며,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세부 산업 영역과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념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법률상의 반려동물 및 연관산업에 관한 개념으로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영업에 관한 개념이 있으나, 반려동물 관련 실태와 정부 정책 방향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8) 일본은 법률에서 ‘애완동물’을 공식 용어로 사용함.

-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024.1 개정/고시)을 통해 기존에 동물용 사료산업에 포함되었던 펫푸드 산업을 ‘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으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의 경우 기존 산업과 세부 범위·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별도의 세분류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펫푸드 이외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도 마련되어야 한다.
- 기존의 ‘배합사료 제조업’과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으로 분류되던 사료 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 ‘축산동물용 배합사료 제조업’, ‘축산동물용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으로 분리된다.
- 세분화된 분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부산업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3.2.2.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기존 법률에는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제정 목적과 세부 내용 등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 육성·발전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근거 법령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해 별도의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령의 제정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법령은 법령 적용 범위·대상을 ① 세부 산업으로 특정하거나 ②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다. 법률 적용 범위를 세부 산업에 특정할 경우 법령 적용 대상이 명확하고, 법률 제정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법령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농어업 및 식품 분야의 산업 진흥·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령들은 일반적으로 총칙 이외에 기반조성과 산업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령 제정 시 총칙

뿐만 아니라 타 법률과의 관계, 기본(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연구·개발과 통계조사, 인력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사항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총칙의 경우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반조성과 산업육성은 기본(종합)계획 수립, 농업과의 연계 강화, 연구·개발, 통계조사, 전문인력 양성, 관련 단체 설립 등의 규정을 주로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3.2.3. 조사·통계 확충 및 주기적 실시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시장이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산업적 대응을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관련 통계·조사가 미흡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실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 펫푸드 산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을 비롯한 일부 정부기관 통계·조사에서 관련 조사 및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조사의 경우 대부분 펫푸드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밖에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의 경우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일부로서 이들 산업의 현황·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시장 실태와 소비자의 반려동물 관련한 제품·서비스 구입·이용 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통계를 가급적 매년 작성하여 정부 정책 수립·추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시장 대응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계의 시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시장 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부영역별로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 이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승인·미승인 통계·조사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공공 및 민간의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통계 이외의 추가적인 통계·조사의 경우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여 추진해야 한다.

3.2.4.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해외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서 2027년까지 펫푸드 수출 규모를 500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펫푸드는 물론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출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산업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국내 펫푸드 산업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업 유형별로 정책 수요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유형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펫푸드 제조업체 설문조사 결과, 검역·통관 관련 자문 및 지원(30.4%), 해외 홍보·판촉 지원(24.1%),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및 조사 지원(20.3%)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매출액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업체와 매출액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경우 정책 수요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5-8. 펫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항목

단위: %

구분	전체	매출 규모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검역·통관 관련 자문 및 지원	30.4	27.8	36.0
해외 홍보·판촉 지원	24.1	27.8	16.0
글로벌 브랜딩 지원	8.9	11.1	4.0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및 조사 지원	20.3	18.5	24.0
국가 간 수출 관련 협약 및 인증 지원	15.2	13.0	20.0
기타	1.3	1.9	0.0

자료: 황윤재 외(2023)의 펫푸드 제조업체 설문조사 결과 인용.

-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수출 실적과 국가별 수출 잠재력을 평가하여 수출 대상국을 선별하고, 이들 국가의 시장·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반려동물 연관시장이 발달한 북미, 유럽 지역과 최근에 반려동물 양육 규

모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연관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남미 등 신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로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시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2.5. R&D 실용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며, 국내 기업들의 R&D 여건·역량, 그리고 R&D 규모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한 R&D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정부 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R&D 성과의 실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의 R&D 여건·역량이 아직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R&D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R&D, 실증, 상용화 등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집적화된 거점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세부산업별로 기업들의 R&D 수요를 반영한 세밀한 대응(지원)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관련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R&D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펫푸드 제조업체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업체들이 펫푸드 관련 R&D 과정에서 비용(14.3%)보다는 인력·장비 부족(57.1%)을 오히려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펫푸드 업체 사례조사에서도 펫푸드 R&D를 주도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R&D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펫푸드 제조업체들은 인력(5점 척도 기준, 4.2점), 정보 공유 시스템(4.2점), 협업체계 구축(4.3점) 등의 R&D 추진 기반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한 R&D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기관·

단체, 산업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장기 R&D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3.2.6. 이해관계자 간 연계·협력 확대

- 정부는 2023년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주요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일련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시장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정부의 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 당사자인 산업계, 기타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산업 육성의 당사자인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펫푸드 산업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주요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펫푸드 관련 민간단체·협회가 펫푸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유럽의 국가별 펫푸드 산업연합 조직인 FEDIAF가 펫푸드 관련 기준·지침을 개발하며, 펫푸드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일본도 펫푸드공정거래협의회, 사단법인 펫푸드협회 등이 펫푸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펫푸드 표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내의 경우 펫푸드 관련 다양한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중 ‘한국펫사료협회’가 국내 펫푸드 산업 관련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AAFCO(미국), FEDIAF(유럽), 펫푸드협회·펫푸드공정거래협의회(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펫푸드 관련 단체와 비교할 경우 펫푸드 정책의 수립·지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 미국 AAFCO의 경우 민간조직이지만 연방 및 주 정부 사료 규정 담당자를 회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펫푸드 관련 단체와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펫푸드 관련 민간단체로서 모델 법률·규정과 각종 표준 지침·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정보 제공, 홍보 등을 통해 산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을 포함한 펫푸드 관련 사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경우, 민간조직에서 ① 실태조사, ② 관련 규정·기준·지침 마련, ③ 이해관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민간조직에서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이다. 이 밖에 정부는 민간부문과 상시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규정·기준·지침 등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정책·제도가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